

무등산 수호신 '산군이'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까?

광주시립창극단 '무등산 산군이' 15~16일 광주예술의전당

"별과 바람의 이야기, 무등산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파란 도깨비 같기도 하고 호랑이도 닮았다. 해태나 용과 흡사한 '산군이'는 낯설지만 아이들에게는 신기할 것 같다.

산군의 정체는 다름 아닌 서기 2122년에 해태로 다시 태어난 '무등산 호랑이'. 익히 알려진 호랑이 외형은 분명 아니다. 부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네 발로 무등산을 지키던 호랑이 '산군이'가 2122년경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광주시립창극단이 제58회 정기공연 '무등산 산군이'를 15, 16일(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22년 전통문화관 야외무대에서 선보였던 동명의 작품을 실내



광주시립창극단 '무등산 산군이' 공연 모습. <광주 예술의전당 제공>

로 가져온 것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작품은 부분별한 환경파괴로 무등산 호랑이 산군이 특유의 용맹함과 정기를 잃어버린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원래는 네 다리였지만 환경오염으로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산군은 세 다리를 질질 끌고 숲속을 어슬렁거린다. 어느 날, 흰 수염을 기른 노인(박무성)이 산군에게 나타난다. 노인은 무등산에 웅크리고 있던 다섯 정령을 깨워 춤과 노래로 풀이 죽어있던 산군이를 위로한다.

산군은 더는 오지 않을 것 같던 '호(虎)시절'을 노래와 춤을 통해 떠올린다. 정령들이 노래를 통해 떠올리는 무등산은 별과 바람이 가득해 향기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관객들은 흥겨운 가락에 저절로 자연의 풍경에 빠져든다. 작품은 오늘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어 아이들에게도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

공연은 바람에 흩날리는 '마지막 씨앗'을 보여 주며 마무리된다. 산군이가 뉘돌던 무등산에 예전대로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 다행히 작품은 해피

엔딩. 긍정적인 상황으로 공연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산군의 내면을 표현해야 하는 특성상 연극의 '방백'처럼 '방창'의 역할도 이목을 끈다.

아울러 극단의 라인업도 기대를 모은다. 다섯 정령 역에 이미소(해신), 고혜수(화신), 정승기(수신), 이은비(풍신), 정동렬(지신)이 역동적인 무대를 꾸민다. 이들은 수염과 지팡이, 남루한 분장까지 착용해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소품으로 준비한 파란 산군이 인형은 아이들에게 동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야금에는 정해성, 타악에는 도경한이 우리 옛 소리를 더할 예정이며 무용은 정숙희, 나운정, 배정화 등이 펼친다.

김규형 예술감독은 "이번 작품은 '창극'을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창작한 작품"이라며 "아이들에게 무등산에 얽힌 전설 뿐 아니라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메시지도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석 1만 원에 티켓링크와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 4세 이상 관람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중국서 '빛'나다

11월까지 후난 뮤지엄 전시... '겸재정선과 세잔'·'그 곳에 가고싶다'



'겸재정선과 세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이 한국의 미디어아트를 중국에 선보인다.

광주를 대표하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오는 11월 11일까지 후난 뮤지엄에서 열리는 전시에 참여한다.

'Rebirth of Antiquities: Archaeology, Time and Digital in Art History'전은 후난 뮤지엄이 후난의 역사적 유산과 후난 박물관의 국보, 디지털 예술의 결합을 통해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이 작가의 참여는 검색엔진 한중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디어아트를 중국 현지에 알릴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겸재정선과 세잔(2009)', '그 곳에 가고싶다(2010)'. 겸재정선의 원작을 디지털로 재해석하고 경계를 초월해 융합하는 이야기들은 시대와 예술의 벽을 허무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이남 작가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연계 행사로 개최된 국제학술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이 작가는 '디지털 시대의 박물관: 디지털 예술과 고대 미술의 학제적 상호작용'의 포럼에서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주제로 독창적인 미디어아트 세계를 이야기했다.

이 작가는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단순한



'그 곳에 가고싶다'

움직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내면적 감정이 소생하는 경험을 불러일으킨다"며 "관람객이 어떻게 하면 작품 앞에 머무름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고전회화는 매력적인 소재"라고 전했다.

한편 후난 뮤지엄은 2022년에 열린 'Fission: The New Wave of International Digital Art'전에 이이남을 초청한 바 있다.

한편 이이남 스튜디오 관계자는 "이이남 작가는 이번 전시를 비롯해 이스라엘 예루살렘 개인전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 국내외를 넘어 전 세계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더운 7월 '독립영화'로 시원하게

'엔니오'·'보 이즈 어프레이드'·'수라' 등 광주극장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독립영화가 갖는 선은 굵직하다. 환경, 음악, 장에 등 감독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주제 의식을 저마다의 영상미로 담아내기 때문이다. 무더운 7월에는 독립영화를 감상해보는 것이 어떨까?

광주극장은 7월에도 독립 영화를 상영한다. 유수의 영화계 개·폐막작과 주연배우 시사회까지 준

비대 시민들의 기대를 모은다.

5일 개봉하는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는 모리꼬네의 음악적 일생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그는 '천국의 나날들(1978)', '시네마 천국(1988)', '월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1984)' 등 500편이 넘는 음악을 만든 영화음악계의 거장으로 평가 받는다. 작품은 독립영화관에 서만 즐길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인터뷰까지 수록해 감상할 가치를 더한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을 장식했던 '보 이즈 어프레이드'도 7일 관객들을 맞이한다. 명작 공포영화의 반열에 오른 '유전'을 연출했던 아리 에스터 감독의 신작이다. 아리 에스터 감독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불편함을 자아내는 영화 '미드소마'의 감독으로도 알려져 있다.

일팔 소년들(boys)의 공포로도 읽히는 작품은 개인의 공포를 떠나 많은 대중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진 피닉스가 연기하는 편 집증을 잃는 아들 '보(Beau)'가 포스트 조커로서 자리매김할지 기대된다.

새만금 마지막 갯벌에 대한 기록 '수라'도 8일 오후 1시에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미 흥행 가도에 오른 이 작품은 개봉 6일 만에 누적관객수 2만 명을 돌파했다. 소멸 위기의 새만금을 날아오르는 검은머리갈매기를 보고 있노라면 작품의 부제가 'A Love song'인 것도 충분히 이해 된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에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시사회가 있었다.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도 알려진 이 작품은 김예란의 베스트셀러 '바깥의 여름'을 원작으로 만들어져 깊이를 더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희정 감독, 박하선 등 주연배우들이 참석해 관객과 만났다.

문의는 광주극장 유선 전화나 네이버 카페로 하면 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고수풍류'

8일 국악원 진악당...김태영 출연

"소릴 뱌는 기본이 되는 북 잡고 니들에게 보여 줬어(이로한 등의 노래 '북' 중에서)"

북소리 없이는 판소리의 창도 아니리고, 발림도 모두 소리의 '맛'이 부족하다. 묵직하게 잡아주는 중심이 흔들릴지 모른다. 이같은 북의 중요성에도 고수는 소리꾼 결사에 비교적 조연으로 인식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국립남도국악원의 7월 첫 번째 상설공연 '국악이 좋다-고수풍류'가 8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수'가 무대 중앙으로 자리를 옮긴다. 거문고와 징을 양옆에 두고 무대 중

앙을 차지하는 고수의 존재감이 눈에 띈다.

공연에서는 3대째 음악인의 길을 걷는 고수 김태영이 출연한다. 37회 전주 전국고수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진도씻김굿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남도민속놀이문화예술원의 대표를 맡아 남도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부친인 김요형 명인(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전승교육사)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진도농악 중 하나인 신정농악을 재구성한 '신정쇠악'을 펼치며 '부전자전'의 감동과 묘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레퍼토리는 타악을 곁들인 악무 '성화가 났네',



고수 김태영

'생과 사, 제석과 씻김' 등이 예정되어 있다. 공연의 절정은 '고수를 위한 청의 바다'. '심청가' 중심점이 투신하기 전 해안의 절경을 묘사하는 '범피종류(泛彼中流)',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 등을 판소리와 춤을 통해 보여준다. 작품의 제목이 '고수'를 위한 청의 바다인 만큼, 북소리의 역할과 깊이감이 관객들의 기대를 모은다. 사전 예약은 전화 또는 국악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기억의 공간, 마음의 풍경'

윤정선 개인전, 8월 27일까지 광주롯데갤러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억의 공간이 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가도 언뜻 언뜻 기억의 장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을 때가 있다. 공간과 기억이 주는 힘이다.

윤정선 작가에게도 마음의 풍경으로 남는 공간들이 있다. 지금까지 기억을 풍경으로 바라보며 시간이 축적된 공간을 소환하는 작업을 해왔다.

윤정선 작가 개인전이 8월 27일까지 광주롯데갤러리에서 열린다.

4일 개막한 전시는 무엇보다 '길 위에서'라는 시적이고 감성적인 주제가 눈길을 끈다. 작가가 도심이나 일상의 공간을 거닐며 보았던 풍경을 조점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은 지난해 제주도 아트랩와산 레지던시 기간 작업한 신작들과 제2회 수목비엔날레 초청작인 '목포 유달산' 시리즈 등을 포함한 6개 시리즈 48점이다. 개개의 작품은 침묵과 침잠, 고요와 부재 등과 같은 언어를 환기한다. 목포근대역사관을 비롯해 유달동 시리즈 작품들은 단순히 근대 풍경 너머 사람살이의 부재와 무늬를 보여준다.

윤 작가는 "인간의 머릿속에 내재된 특정한 기억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장소는 그대로 남아 존재를 증명하기 마련"이라며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응결된 곳일 수 있는 장소를 찬찬히 응시하듯 그린 작품들"이라고 말했다.

이은하 콜렉티브오피스 디렉터는 "누구나 지나쳤을 거리와 동네의 모습들은 역사와 공동의 기억이 스며있는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기도 하며 작품을 보는 사람들 각자에게는 자신의 기억과 이야기를 환시시키는 시간적 매개가 되기도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달동소요'

윤 작가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약 3주간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와 동명동 한옥레지던스에서 머물며 광주 구도심과 양림동 풍경을 작품화할 예정이다.

한편 윤 작가는 이화여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 서양학과를 졸업했으며 중국 칭화대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호미술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등 14회 개인전을 비롯해 세계도시의 건축전, 우리시대의 유산전 등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